

毅菴 柳麟錫의 反開論

교양과
전문강사 김 세 규

I. 緒 言

東學 農民蜂起를 鎮壓하고 淸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은 朝鮮에서 獨占的인 支配權을 樹立하여 朝鮮에 대한 侵略을 強行함과 아울러 馬關條約에서 얻은 有利한 條件을 利用하여 滿州大陸에 대한 侵略을 始作하였다.

한편 帝政러시아도 1893년부터 Siberia 幹線鐵道 敷設을 開始하면서 極東進出을 積極化하고 있었는데 日本은 러시아의 滿州 侵略에 큰 障害가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當時 列強의 矛盾을 利用하면서 中國侵略의 有利한 條件을 얻으려고 努力하고 있던 獨逸, 佛蘭西와 힘을 합하여 1895年 3月 日本政府에 대하여 遼東半島를 淸國에 返還하도록 干涉하여 이의 成功으로 러시아는 淸國에 대한 發言權이 強해지자 滿州侵略을 強化하는 한편 朝鮮에 대해서도 積極的인 勢力을 펼쳐왔다.

三國干涉後 駐朝鮮露國公使 weber는 淸日戰爭 過程에서 勢力을 잃은 閔氏一派에 接近하여 大院君과의 矛盾과 對立 및 日本의 露骨的인 內政干涉과 侵略行爲의 反感을 利用 이들을 策動하였다. 閔氏一派와 一部 支配者들은 三國干涉에서 強大性을 보인 러시아에 依據하는 것이 有利하다 생각하여 곧 親露派가 되고 1893年 7월에 政變을 일으켜 親日內閣에 대신하여 親露內閣을 성립시켰다. 이같은 事態에 直面하자 日本은 狂的인 冒險으로 乙未事變을 일으키고 李完用, 李範晉, 李允用, 安駒壽 등의 親露派를 除去하고 徐光範, 鄭秉夏, 金宗漢, 權瑩鎭, 兪吉濬등을 중심으로 하는 親日派의 第四次 金弘集 內閣을 成立시킨 후 10月 10日에는 廢后詔勅, 11月 15日을 期하여 太陽曆使用과 斷髮令을 頒布하였으니 특히 斷髮令의 頒布는 現代化를 위한 일이지는 하나 民情을 無視한 拙速한 處事였고 이를 強制施行함으로써 一般民衆의 忿怒를 불러 일으켰으니 斷髮令 頒布를 契機로 일어난 義兵의 蜂起는 斷髮을 反對하는 單純한 保守的인 抗擧만이 아니라 日本 侵略에 대한 反抗이었던 것이다.

本稿는 以上과 같은 社會의 急變期에 對處한 韓末 知識層의 代表的인 人物인 毅菴 柳麟錫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韓末의 代表的인 學者인 華西 李恒老의 弟子인 그는 先生의 뜻을 이어받아 衛正斥邪를 부르짖고 初期 義兵抗爭을 主導하였으며 이것이 如意치 못하자 갖가지 方法으로 日帝에 抗拒하였다. 그러나 끝내 亡國의 슬픔을 안고 異域 遼東의 하늘아래서 74歲의 나이로 一生을

마치었다.

本稿는 그의 生涯와 그의 思想 특히 그의 中心되는 思想인 衛正斥邪에 立脚한 反開論을 중심으로 國難에 對處했던 良心있는 知識人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本稿의 叙述이 그의 反開論에 치중하다보니 그의 全體의인 思想의 把握에 疎漏한 바 적지 않은 점이 있음은 사실이다. 아무쪼록 先學諸賢의 叱正과 鞭撻을 바란다.

II. 毅菴의 生涯

毅菴 柳麟錫은 天主教의 傳播와 洋船의 出沒로 開國 開化의 風雲이 迫頭하던 憲宗8(1842)年 正月 27日 江原道春川 南面의 柯亭에서 父 柳重坤氏와 母高靈 申氏 사이에서 出生했는데 本은 高興, 字는 汝聖이며 毅菴은 그의 號이다.¹

나이 14세 때 華西 李恒老의 門下에 들어가 儒學에 精進하였으며 朝鮮에 대한 西歐列強의 最初의 武力挑發로서 朝野에 큰 충격을 준 1866년 丙寅洋擾時 李恒老를 따라 上京하여 朝廷의 混亂을 目擊했을뿐 아니라 李恒老가 「辭同副丞旨 兼陳所懷疏」라는 斥和疏에서 將來한 洋船의 侵攻에 對備할 方案은 오로지 內修自強에 있음을 強力히 提唱함을 目擊했다. 1868년 스승인 李恒老가 逝去하자 毅菴은 柳重教, 金平默과 함께 華西의 遺志를 繼承하여 衛正斥邪를 부르짖고 1876년 日本과 江華島條約을 締結함에 省齊 柳重教가 “此將以啓 洋賊接踵之路 而立見孔道之喪亡也”²라고 이의 不當性을 주장, 이를 그대로 默認한다면 장차 큰 禍를 免하지 못할 것이라고 力說하자 毅菴도 洪在龜등과 같이 絶和疏³를 올려 이의 不當性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上疏는 貫徹되지 않고 오히려 洪在龜는 處刑되었으며 이밖에도 崔益鉉은 五不可疏를⁴ 崔丙大(前正言)⁵, 張皓根(前司果)⁶, 金斗淵(副護軍)⁷, 吳尙鉉(右通禮)⁸, 權鳳煥(前注書)⁹, 李敦禹(副護軍)¹⁰, 權鍾錄(執義)¹¹등 在野 및 低位 現職者들의 斥和論과 李裕元(領府事)¹², 姜老(判府事)¹³등 高位者들의 上疏가 그치지 않았다.

¹ 毅菴集, 景仁文化社刊, 1970. 卷55. 年譜

² 毅菴集, 景仁文化社刊, 1970. 卷55. 年譜

³ 重菴集 卷3 京畿江原兩道儒生 論洋情請絶和疏

… 한번 通好하게 되면 그것은 곧大亂의 길이다. 오늘의 洋賊은 夷賊가운데 最醜의 것으로서 곧 禽獸들이다. 그 奇技淫巧와 妖術邪教는 마치 毒箭과 같아서 …

… 士卒를 鍊하고 府庫를 充하고 民業을 安하고 邊備를 鞏固히 하는것이 禦侮의 急務요 津物の 禁絶이 至急至切한 일이다.

⁴ 日省錄 高宗 13年 正月 23日條

⁵ 日省錄 高宗 13年 正月 30日條

⁶ 日省錄 高宗 13年 正月 13日條

⁷ 承政院日記 高宗 16年 正月 24日條

⁸ 日省錄 高宗 13年 正月 27日條

⁹ 日省錄 高宗 16年 正月 24日條

¹⁰ 日省錄 高宗 14年 3月 4日條

¹¹ 日省錄 高宗 14年 正月 30日條

¹² 日省錄 高宗 16年 6月 17日條

¹³ 日省錄 高宗 16年 6月 19日條

그러나 開國이 되고 甲申政變, 甲午改革, 乙未弑害등 一連의 日帝 侵略政策이 強行되자 地方儒生의 抗疏運動이 武力抗爭으로 발전 全國儒林의 蜂起를 誘發하였다 毅菴은 乙未(1896) 11월에 門人李春永 安承禹등에 推戴되어 義兵大將으로 初期義兵의 指導者가 되어 그의 義兵은 한때 3천명의 兵力으로 增強되어 忠州, 堤川, 丹陽, 原州, 等地를 掌握하고 強力한 抵抗을 始圖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雨期를 만나 官軍 張基濂 部隊에 敗戰하여 西北地方으로 抗戰基地를 옮겼으나 역시 呼應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鴨綠江을 건너 遼東에 들어갔다. 渡江을 알든 毅菴은 楚山 阿夷城에서 鬱鬱한 心懷를 長文의 檄文인 「再檄百官」에 적어 開化 執權層을 非難했다. 檄文에서 그는 開化派를 販君賣國之徒라 規定하고 그들이 稱爲萬國開化하여 天下萬國中에 홀로 남은 단하나의 禮義之國인 우리나라를 悖倫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非難하고 그들이 지은 세가지 罪惡 즉 舊制를 더럽힌 罪, 禮義를 짓밟은 罪, 國母를 죽인 罪를 들었다. 또 그는 지금 나라를 버리고 鴨水를 건너감은 期必코 怨讐를 갈고 다시 우리나라에 禮義之邦을 세우기 위한 것이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異域에서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머리를 하고 우리의 舊制를 지켜 죽어서 歸國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⁴ 이처럼 그의 渡江目的은 淸의 援助를 받아 武力으로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遼東에 첫발을 디디자 先發隊로 보낸 李範稷이 中國 官憲에게 武器를 빼앗기고 部下 20여명과 함께 被殺되었다는 悲報에 接했고¹⁵ 그 역시 懷仁縣 縣宰 徐本愚의 制止를 받아 갖은 逆境을 무릅쓰고 滿州까지 떠러운 219명의 義兵을 波瀾江上에서 解散하고 通化縣 五道溝에 定着, 將來自主의 再起할 機會를 기다렸다.

그해 11월에 「與同門士友書」¹⁶를 보내어 自己가 처음 義兵을 일으킨 目的과 그간의 經過 그리고 士友들에게 李恒老 柳重教, 金平默 3先生의 가르치신 道를 잊지말고 자기 맡은 일에 힘껏 노력할 것을 부탁했다. 또 「與同義諸公書」에서 義兵이 없어진 뒤로 賣國의 무리들이 못하는 것이 없고 그 變이 날마다 더 심해질 것이니 衣服을 變更하고 머리를 깎는 일 등은 義兵으로 中止되었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니 自己는 이를 막기 위한 大義를 完遂하려 함에 同義諸公의 協力을 구하였다.¹⁷

이듬해(1897) 8月에는 徐相懋 金連植이 임금의 招諭文을 갖고 毅菴을 찾아왔다. 招諭文에서 “綱常의 義는 君臣사이가 제일 크며 勸懲하는 法은 順逆으로 나누어져 있음은 列聖先王之 道이니…… 옛날의 잘못은 모두 용서하고 너희들이 바친 誠意는 아름답게 여겨 너에게 官爵을 除授함과 동시에 나의 뜻을 알려주노니 당일로 즉시 돌아와 朝廷의 命을 받으

¹⁴ 毅菴集 卷45 再檄百官文

¹⁵ 李正奎 「六義士列傳」中 李範稷條 義兵抗爭史資料集 卷1 獨立運動史編纂會刊 1970.

¹⁶ 毅菴集 卷24 「與同門士友書」

¹⁷ 毅菴集 卷24 「與同義諸公書」

“自無義兵後 彼賣國之徒 非斥大義 無所不至 張皇大變 愈往益甚 其所大欲 變服削髮等事 因義兵而中止者將復大行奈何蓋以生以死以坐以起 完吾大義而已矣 苟以起則 其終不葉麟錫乎 揮鞭擊節 萬里未爲遠他

라 父母의 나라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¹⁸라고 하였다. 이에 毅菴은 임금의 은혜에 感泣하며 그길로 귀국하여 楚山에서 「陳情待罪疏」를 올려 먼저 詔書를 내려주신 임금에 대한 감사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데 感激하여 귀국하게 되었으며, 義兵을 일으킨 動機와 目的 그리고 自己가 뜻한바 舉義가 成功치 못하여 遼東으로 간 事實 및 그간의 生活을 아뢰고 임금에게 祖宗의 禮樂과 傳統을 지켜달라는 부탁과 自己는 아직 大義를 이루지도 못했고 父母의 喪期도 마치지 못한 忠孝의 罪人이므로 死刑에 處해 달라고 아뢰었다.¹⁹ 이에 대한 王의 批答은 모든 罪를 묻지 않고 새로운 길을 開拓하라는 것이었다.²⁰ 毅菴은 平山을 거쳐 春川에서 지내면서 9월에는 「呈同志諸公書」²¹를, 10일에는 「追呈疏」를 보내어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 이듬해에는 국내사정이 自己가 예상했던 바와 같지 못했던 데다가 항상 監視의 눈길이 그치지 않자²² 다시 遼東行을 斷行하게 되었다. 正月 10日 遼東行을 할때 다시 同志諸公에게 先王 先賢들의 道를 지키며 나라를 바로잡기를 부탁하는 글을 보내고²³ 그해 여름에는 遼東에서 여러 門人들과 義諦를 相約했으니 그 목적은 “萬古華夏一脈墜盡之驗 千辛萬苦 準保其典型 永基來復固其望也”²⁴라고 한 것처럼 傳統的인 國制와 禮義를 지켜 尙再建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그의 나이 58세가 되던 1900년에 우리나라가 箕子以來 羅麗 등 뛰어난 文物과 아름다움을 사람마다 알게하여 激奮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또 天下에 이를 알림으로 天下로 하여금 놀라게 함과 이를 본받게 하여 세계의 여러 夷族들로 屈服케 함과 禮義를 존중하게 하고자 東國風化錄을 著述하고²⁵

“夫樂言 今日爲士者 若夷狄禽獸不逐 天主堂不毀 祖宗典型不復 亂賊不討 舉義死節 之人不雪冤 褒忠有一於是 不得出之意

라고 出處의 理由를 밝히는 出處說²⁶을 그리고 나라가 病들게된 理由와 이의 治療方法으로 禮義廉恥를 바르게 하고 風俗을 바로잡아 刑을 살리고 薄斂을 고르게 하여 忠孝를 그 基本으로 하자는 國病說을 著述했다.²⁷

이듬해 봄에는 遼東에 浮浪 無法者들이 많이 떠돌아 다닐을 보고 鄉約을 실시하여 집에서 忠孝를 敦厚히 하고 나라에 대해서는 忠順을 본받도록 가르치고 그해 다시 귀국하여

¹⁸ 李正奎「倡義見聞錄」中「招諭倡義士柳某」義兵抗爭史資料集 卷1.

“王若曰 咨爾臣柳麟錫 綱常之大 君臣爲大 勸懲之法 順逆有分 此列聖先王所以。… 特赦前愆 嘉乃効誠 茲遣臣徐相懇金連植 除拜爾爵 以論朕志 即日促還 以肅朝令 父母之邦不可棄也 褒職補闕 深有望焉 故茲詔示 相宜知悉”

¹⁹ 毅菴集 卷4「楚山陳情待罪疏」

²⁰ 李正奎「倡義見聞錄」”答曰 省疏具悉 爾之能次悔自首 極爲嘉尙 特赦爾罪 以開自新之路”

²¹ 毅菴集 卷24「呈同志諸公書」

²² 毅菴集 卷24「追呈」

²³ 毅菴集 卷24「呈同志諸公書」

²⁴ 毅菴集 卷55 年譜

²⁵ 毅菴集 卷55 年譜

²⁶ 毅菴集 卷35 雜著「出處說」

²⁷ 毅菴集 卷35 雜著「國病說」

各地를 돌아다니며 講學에 專念하고 이듬해(1901) 平安道 石川 石溪에 書堂을 세우고 孔子와 箕子 그리고 朱子, 尤庵, 華西의 像을 奉安하고 每月朔望에는 小講會를 베풀어 春秋를 講義하고 亨禮日에는 大講會를 베풀어 鄉飲禮를 舉行하였다.

한편 毅菴의 門人 金華植이 毅菴이 舉義以後 發表한 檄文, 書信들을 모아 4卷과 續集 1卷을 만들고 李正奎, 車戴貞, 白三奎 등은 昭義新編 千餘秩을 刊行하여 四方에 頒布하고 任午準을 시켜 50秩을 中國 江南의 義氣 人士들에게 配付하였다.²⁸

毅菴은 다시 龍岡, 宣川, 龍川 등을 다니며 講學에 힘쓰고 이듬해 堤川, 春川, 石溪로 다니며 여러 門人들에게 깊은 思想的 影響을 끼쳤으며 그의 나이 63세인 1904년에는 殷栗에 있는 興道書社에 들러서 선비로서 해야 할 方法 規律 등 10餘條에 걸친 興道書社約束²⁹을, 奇正鎮과 田愚의 納涼私議에 대해 자신의 見解를 밝히는 納涼私議目講辨³⁰을 卞山에 있는 柳重教의 像을 奉安한 山斗齊에 省齊先生事實約束 10餘條를 지었다.³¹ 그 해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舉義하느냐 守義로 그치느냐에 苦悶하여 漆室憤談에서

君上定殉社之志 羣臣辨死國之心 期於肯城一戰 猶足致八路響應 存亡間皆有辭 若歷於賊賈 不能白朝廷有爲則 激外以起暗助其勢 勢成內應猶爲其次 著漆室憤談 徧示朝野³²

라고 한 것처럼 八路에서 모두 響應하여 背城一戰을 주장했다. 그러나 自身은 無力해서 不可하니 舉義할 수 없고 그렇다고 殉死하면 便하지만 얼마 남지않은 志士마저 죽어서 누가 이나라 禮樂을 지키겠느냐 그러므로 他國에 가서 去國守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呈邦內士友書」에서

舉義無力不可也 致命則身與道 正終事順而心安慶以加矣 去守一事 去國雖擲 守義爲大蓋痛 華脈聖緒之有絕 求得天下之深區曠地 會得一世之陽類同志 依舊是衣冠焉依舊是終傳焉 依舊是禮樂焉 成得成得大華別世界也³³

라고 하였다. 즉 深曠한 나라에 가서 同志를 만나 옛 衣冠 禮樂을 지켜 小華의 世界를 이루기 위해 去國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사람의 勸誘도 있고 반드시 去國守義하지 않아도 在國守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守義義諦通告邦內士友書」를 보내어 한 두사람이 자기 자기 나름의 守義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곳에 모여 一心으로 守義하면 天地鬼神도 感動하고 옛 聖王聖賢들도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³⁴ 그러는 한편 一進會가 妄動을 하여 日本의 앞잡이로 갖은 醜態를 부리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우선 全國

²⁸ 毅菴集 卷55 年譜

²⁹ 毅菴集 卷37 雜著 「興道書社約束」

³⁰ 毅菴集 卷34 雜著 「納涼私議目講辨」

³¹ 毅菴集 卷37 雜著 「山斗齊聖祠事實約束」

³² 毅菴集 卷35 雜著 「漆室憤談」

³³ 毅菴集 卷24 書 「呈邦內士友書」

³⁴ 毅菴集 卷24 書 「守義義諦通告邦內士友書」

에 鄉約組織을 펴서 이에 對抗하자는 것이다. 즉,

“몇달만 지나면 人道가 다시 餘望이 없겠으니 각기 그 고을에서 벗에게 미쳐 급히 鄉約을 마련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서로 保存하며 이 猛烈한 불 가운데서나마 얼마큼 사람을 구하여 낸다면 역시 多幸일 것이니 힘쓰기 바란다.”³⁵

고 하고 全國 儒門이 合同하여 都約所를 두어 가장 重望이 있는자로 都憲을 그다음 副約長과 有司를 任命하고 各都, 邑, 面, 里에 大小約所를 두어 名望있는 자를 택하여 그 長으로 삼고 貴賤을 막론하고 一齊히 錄名成冊하여 진실로 德業相勸하고, 過失은 相規하며, 禮俗은 相交하고, 患難은 相恤하여 서로 禮俗을 지키기로 約定하면 國可定 人可安 道可恃 즉 나라의 滅亡을 막고 平和를 지켜 道를 가히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³⁶ 한편 「內小喪處義」에서 內小喪의 服制에 대해 자신의 뜻을 밝히고 「或人對」라는 글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性情을 論하여 堤川等地에서 講會를 베풀어 鄉約組織을 굳건히 하였다.

1905年 7月에는 宜川의 鳳洞에서 오른쪽 다리에 脚氣가 일어나 舉動이 어려움에도 萬東廟講會에 參加하여 守義할 것을 力說하고 乙巳條約이 締結되리라는 所聞을 듣고 「通告一國摺紳士林書」를 띄워 거기서 在朝 退朝를 막론하고 大小摺紳이 一齊히 奮發하여 八路士民이 모두 모여 비록 兵討는 못하더라도 義討하고 言討하자고 하였으니

公卿大夫 立朝在野者 非止千百一國儒林 亦復累十萬承 君上之心辨活國置身之計之計連結齊興 爲所當 爲舉兵討之固可也 勢所不及無得爲也 何以兵呼以義討以言討可也”

라 했던 것이다.³⁷

한편 袁世凱가 北洋大臣으로 大兵을 이끌고 天津에 駐屯해 있자 毅菴은 白仁海와 金庸濟를 派遣하여 軍隊의 힘을 빌려 倭를 칠것을 再次 呼疏했으나³⁸ 이루지 못하고 11月 27日에는 乙巳條約이 締結되자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猛烈히 일어났고 모두들 毅菴이 나서서 先導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起動조차 不便한 그가 上京한다는 것은 日本軍에게 逮捕당할 뿐 아무런 意味가 없다는 側近의 晚留에 따랐으나 門人인 朴世和 元容八 鄭雲慶등이 舉義하여 逮捕되었다는 所聞에 自身은 殉節하거나 다시 遼東으로 去守之行을 擇할 길 밖에 없었다. 그는 죽음이나 個別的인 抗擧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主張하며 어디까지나 살아서 國權權恢復을 위한 組織的인 行動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다시 遼東으로 去守之行을 하기로 作定하고 「告親戚士友書」에서

削禍至時 固將殉義 而殉義之前 幾日幾月間 事事件件 不受離夷節制 不得纔受其節制 使屬其民 死不忍爲 且求天下深山密林 去保華脈素懷義諦 今將不得已 扶病登程³⁹

³⁵ 李正奎 「倡義錄」 義兵抗爭史資料集

³⁶ 毅菴集 卷55 年譜

³⁷ 毅菴集 卷25 「通告一國摺紳士林書」

³⁸ 毅菴集 卷55 年譜

³⁹ 毅菴集 卷25 「告親戚士友書」

이라고 去守之行의 理由를 밝혔다. 그러나 도중에 脚氣病으로 去守之行마저 斷念하고 坐義守義하기로 하고 春川 柯亭으로 돌아와 「與同志士友書」에서 이를 알리고⁴⁰ 西嶽問答를 지어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서기를 바랐으나 몸이 불편해 나서지 못하여 陰鬱하고 답답한 心情을 問答式으로 표현하고⁴¹ 「再告摺紳士林書」에서 摺紳士林들이 貪利와 좋은 田宅에만 급급하여 義討 言討는 하지 않음을 나무래고 京城 및 八路에 新學校를 세워 倭語와 倭技術을 가르치며 觀察使, 郡守는 극력 이를 支支하며 多數의 士大夫도 이를 支支하여 어린아이들을 여기다 強制入學 시킨다니 이는 前에 없던 큰 變怪요 장차 天地가 崩潰하고 道理가 淪沒하며 人物이 消滅되는 變怪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⁴²

1907년 海牙密使事件이 發生하여 日本은 이를 契機로 高宗을 廢位하고 純宗을 내세우며 丁未七條約을 締結하여 軍隊를 解散하였다. 이에 京城士民들의 人心은 들끓고 解散軍人들은 日本 및 賊에 대해 復讐의 行動이 끊이지 않고 全國에서 義兵이 蜂起하였다. 이때 그는

“人心이 이 같은데 다시 餘地가 없다. 나는 장차 京城 및 13道 人民에게 奮發하여 모두 일어나 不持寸鐵이라도 以言制彼할 것이다.”⁴³

라고 하였으니 全國民의 組織的인 聲討大會를 열어 敵을 制壓하기를 主張하고 上京했으나 國內에서 벌어지는 義兵抗爭은 國外로 부터의 援助가 없는한 終局에 가서는 失敗할 것을 豫見하고 海參威는 러시아의 땅이라 日本의 勢力이 아직 미치지 못하니 거기에서 恒久的인 基地를 건설하여 國內 義兵에 武器를 供給할 뿐 아니라 직접 이들을 激勵하고 本國收復作戰을 計劃함이 옳다고 判斷하여 同志士友에게 이를 알리고 元山에서 배를 타고 北으로 갈려 했으나 落馬하여 다시 各道 倡義所에 글을 보내어 一國盡起와 持久戰이 무엇보다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즉,

大抵 今義舉太上一國盡起 盡起則事可快齊如其不然 其次持久 持久則自然生機括要持久 士卒護擇精建如此 所費少而 爲力實爲諸執事 以爲如何⁴⁴

라 하였다. 그리고 朴治翼과 羅希泰를 먼저 海參威로 보내고⁴⁵ 그는 서울로 돌아와 病을 치료하고 이듬해 正月에 諸陣에 글을 보내어 東南의 義兵들은 西北으로 그 根據地를 옮겨와 白頭山 부근의 茂山 山水甲山 等地에서 基地를 마련하여 淸과 러시아를 連結하여 힘을 길러 一時에 서울에 入城하고자 했다. 그래서 金洛源, 金濟成을 李康年, 許薦 등의 義陣에 보내어 이를 通告하였으니

⁴⁰ 毅菴集 卷25 「與同志士友書」

⁴¹ 毅菴集 卷36 雜著 「西嶽問答」

⁴² 毅菴集 卷25 「再告摺紳士林書」

⁴³ 毅菴集 卷55 年譜

⁴⁴ 毅菴集 卷25 「與各道倡義所書」

⁴⁵ 毅菴集 卷55 年譜

西北強勁 又善放砲 連兩壘我人甚多 間已不無聲氣相連於此 可以聚養兵 力可以優辦 財穀可以造買機械 因又連結清俄二國 應不無其道會集 一國豪蓄銳銃待機 號令一下可動 全國而定大事⁴⁶

라고 하였다.

國內 義兵들은 그치지 않고 舉義하였으나 相對的으로 日帝의 搜索과 討伐이 甚해지자 毅菴은 그해 7월에 다시 東萊에서 배를타고 海蔘威로 향했다. 이때 그는 배위에서

“國命今何境 天心付此行”⁴⁷

이라는 詩를 읊으며 벌어지는 祖國을 바라보며 착잡한 心情을 表現하였다. 이때 그를따른 門人은 朴正彬, 李鎭龍 등 5.60명 이었다.⁴⁸ 海蔘威에 도착하여 그는 崔才亨 李範允의 義陣을 방문하여 激勵하고 9월에는 水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財政的 精神的으로 義兵을 많이 도우며 직접 義兵으로 나서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을 격려하는 글을⁴⁹ 보내는 한편 10월에는 管理使 李範允이 義兵觀規 30餘條를 만들어 義兵들이 지켜야 할 規則과 部隊組織 등을 상세하게 定해 놓았으니⁵⁰ 이는 후일 武裝抗爭部隊의 軍律의 基本이 되었다. 이듬해 西溪洞 芝味村으로 옮겨가며 講學을 하며 貫一約이란 盟約으로 愛國, 愛道, 愛身, 愛人의 마음을 涵養하여 장차 나라를 되찾을 遠大한 計劃을 꿈꾸었으니 10여條의 約束을 만들고 이를 每月 朔에 있는 小會와 重三重九에 있는 大會때 朗讀하고 각자 節次를 정하여 모두들 가슴속에 이를 새기며 성급하게 몇백명의 兵力으로 本土進攻을 꾀하느니 보다는 차라라 一舉에 입은 狼敗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원히 나라는 되찾지 못하고 사람만 없어지는 결과를 생각해서 遠大한 計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⁵¹ 또 貫一約節目 20餘條를 만들어 그 節次 任員등 詳細한 細目を 정하여 規律을 嚴히 하고 모든것을 이 節目에 따라 行하도록 하였다.⁵² 그러나 露領義兵의 本土進攻은 실패하고 더구나 安重根이 하르빈에서 伊藤을 狙擊한 事件을 契機를 日本은 最終的인 合併計劃에 着手 하였다. 이에 毅菴은 金晚松으로 하여금 「通告北道士林書」⁵³를 전하게 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北道士林들에게 貫一約을 지킬 것을 부탁하고 매일 아침 사람들과 함께 貫一約束을 외우며 또 「義務有統」을 지어 解弛해진 人心을 合하기 위하여 統制法과 團結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李範允이 都總裁가 되어 이를 定하였으니 登壇義節 義員帖 立義案 立軍案등 각종 형식을 마련하여 秩序와 命令體係를 確固히 하였다.⁵⁴ 이듬해(1910) 正月에는 「荒見奉示約中諸賢」이란 글에서 舉事主義, 有備宣

⁴⁶ 毅菴集 卷25 「與諸陣別紙」

⁴⁷ 毅菴集 卷2 詩「北海舟中作」

⁴⁸ 毅菴集 卷55 年譜

⁴⁹ 毅菴集 卷25 「與水淸舉義諸人」

⁵⁰ 毅菴集 卷36 「義兵觀規」

⁵¹ 毅菴集 卷36 「貫一約束」

⁵² 毅菴集 卷36 「貫一約束節目」

⁵³ 毅菴集 卷36 「通告北道士林書」

⁵⁴ 毅菴集 卷36 「義務有統」

聲, 興兵, 濟兵, 解兵, 制兵, 統制有子, 約事繫關, 濟事別策, 清地運器, 目下接濟, 盡力無泛의 10여條에 걸친 實際 事項을 마련해 놓았다.⁵⁵

한편 毅菴은 李範允, 李南基, 李相高 등의 推戴를 받아 露領에서 本土收復의 마지막 希望을 건 13道義軍都總裁에 나서게 되어 「復國存社 扶道保民」의 大旗熾아래 都總裁에 柳麟錫, 彰義總裁 李範允, 壯義總裁 李南基, 別指揮 李相高, 外務員 鄭在寬, 安昌浩, 李甲, 洪範圖, 玉昌陳이었다.⁵⁶ 이는 沿海州 지방에 多樣하게 編成되어 있었던 各 義兵團體의 聯合體와 같은 性格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즉 李範允은 彰義會를 結成하여 活動하고 있었음에도 彰義總裁에 任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당시 沿海州 地方에 居住하지 않고 國內에 있는 志士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考慮하면 一種의 亡命政府같은 性格을 띄우고 있었다. 즉 島山도 이때 沿海州에 없었다는 說이 有力한데도⁵⁷ 外務의 任을 當했던 것은 本意가 아니라 해도 13道義軍을 조직했던 당시의 人士들이 舉國的으로 義兵組兵組織을 劃策하였던 所致라 생각된다.⁵⁸

毅菴은 13道大小同胞에게 告하는 글에서 大小同胞의 一齊同心과 二千萬民의 一齊辨死를 提唱하여 亂賊과 讐夷를 몰아낸 뒤에 中興泰平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으며⁵⁹ 組織的인 運動方法으로는 全國 各道, 各邑에 總裁, 總領, 召募, 糾察, 通信 등 職任을 두어 各 任員들의 「莫不慕之忠義善良之心」으로 全國民이 일제히 일어나 痛哭運動을 벌릴 계획을 세웠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計劃이 미처 實現되기 전에 韓日合併의 悲報에 接했다. 이에 國內뿐 아니라 露領에 駐在하는 모든 韓國人들이 痛憤하여 哭聲이 그치지 않았으며, 李相高이 「大韓之民 誓」라는 聲明書를 만들어 萬餘名의 署名을 얻어 各國政府 및 新聞社에 이를 보내어 合併의 不當함을 世界에 呼訴하려 하자 그는 제일 먼저 署名하였다. 그리고 13道義軍都總裁의 이름으로 高宗에게 海參威로 播遷하여 列邦의 公議를 일으켜 國權을 恢復하자는 內容의 「播遷于俄領海參威」의 上疏를 올리고 다시 「再告13道大小同胞」에서

“嗚呼 我二千萬同胞 極自痛恨一心 辨死剋滅血讎世讎日賊 還奉我皇上 於至尊之位 有隨我民人 於快活之地 麟錫只有辨死 永堅執義旗於己”⁶¹

라고 하였다. 즉 日賊을 물리치고 皮上의 稱號를 돌려주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사는 길이나 모두 이를 이루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다.

한편 亡國이라는 事實에 自身の 處身을 생각하여 門人들에게 義를 지키는 세가지 방법 즉 處義有三을 提示 했으니

⁵⁵ 毅菴集 卷36 「荒見奉示約中諸賢」

⁵⁶ 趙東杰 「安重根義士 裁判記錄과 人物 金斗星考」 春川教大論文集 第7 1969. pp. 37.

⁵⁷ 朱耀翰 「安島山全集」 p. 105.

⁵⁸ 趙東杰 前揭書 p. 39.

⁵⁹ 毅菴集 卷37 「通告13道大小同胞」

⁶⁰ 毅菴集 卷55 年譜

⁶¹ 毅菴集 卷37 「再告13道大小同胞」

“一曰保華於國 二曰守華於身 三曰以身殉於華”⁶²

로 保華於國은 나라를 되찾은 후에 保華가 可能하나 復國한다고 해서 반드시 保華를 達成한다 할 수 없고 以身殉於華는마땅히 一國人이 다같이 하여야 하므로 不可能하므로 몇몇 同志들과 같이 할 수 있는 守華於身의 길이 適當하다고 解析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 때에 모든 志士들은 國內에 머물지 말고 間島로 나와 함께 守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듬해(1911) 6月에는 同伴士友에게 告하는 글에서 復國과 扶華, 救人の 三大大義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쓸것이며

“人情見事 機遲緩則 或生懈怠之心 有事勢窮塞則 或發渙散之志 此庸凡人事”

라고 前提한뒤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既約一心 又盟死生有秉 萬古大義 有營天下大事 有始而無終豈不傳 笑於人傳笑 且置獨無愧於吾心 無慊於吾義呼”⁶³

라 하였다. 즉 급작스레 어떤 일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의 마음이 解弛해지고 事勢가 急하다고 해서 마음이 흩어짐은 小人들이 하는 것이니 우리가 一心으로 約束하고 죽기를 맹세한뒤 天下大事를 이루지 못한다면 후세에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것이 아닌가 하고 3大大義를 위해 힘쓸것을 呼訴하였다.

한편 中國은 1912년 辛亥革命이 일어나서 共和政을 宣布하자 毅菴은 中國政府 및 諸省士君子에게 보내는 글을 지어 金起漢, 白三奎, 張基正으로 하여금 傳達케 했는데 거기서 그는 옛날 華夏의 傳統을 恢復하고 自立하여 그것을 지켜달라고 當付하였다.⁶⁴ 9月에는 露領에 居住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차 依託할 바를 모르고 러시아 國籍에 맡길려 함을 보고 『通告俄領流寓同胞』라는 글에서 그 義理와 利害를 說明하여 이의 不當함을 說明 하였다.⁶⁵ 또한 1910년에 러시아와 日本의條約을 맺은뒤 부터는 러시아에 居住하는 僑胞들에 대한 干涉과 壓迫이 甚해지자 그는 中國行을 결심했다. 이때 毅菴은 나라를 잃고 中國마저도 西洋의 共和制를 받아들인 슬픈 現實을 慨歎한 名論인 宇宙問答을 著述했다. 여기서 그는 天下古今 및 進退, 屈身, 盛衰, 強弱, 天地人心, 中國政制, 學術是非, 得失際若의 歸結등을 指摘하여 說明하고 中國 聖賢을 尊敬하며 이로서 萬世의 基本으로 한다고 주장 하였다.⁶⁶ 또 『病狀記語』에서는 中國의 古制 및 衣冠, 文物制度에 대해 論하고 『寒燈蔓草』에서는 天下를 다스리는 道理로서 사람의 마음과 풍속을 바르게 하고 天下를 다스리는 데에는 紀綱을 바로 잡아야 한다. 得失과 賞罰을 바르게 하고 이를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紊亂이 오

⁶² 毅菴集 卷36 「處有義三」

⁶³ 毅菴集 卷36 「書告同伴士友」

⁶⁴ 毅菴集 卷25 「與中國政府 및 諸省士君子」

⁶⁵ 毅菴集 卷25 「與俄領寓居同胞」

⁶⁶ 毅菴集 卷51 「宇宙問答」

게 된다. 또 사람을 쓰는데도 德이 있는자를 爲主로 하고 足食足兵하여야 백성에게 믿음을 주고 이러했을때 나라는 泰平해지고 국민들도 勤儉 實德해야 한다고 했다.⁶⁷

이듬해 1914年 3월에 中國 奉天省 西豊縣에 도착하고 5월에는 興京縣 暖泉山中에서, 8월에는 寬甸縣 芳翠溝에서 머물면서 毅菴 最後의 著述인 道冒編이 이루어졌다.

1915年 正月 29日 寬甸縣 芳翠溝에서 74세의 나이로 一生을 마쳤고 그해 4월에는 門人 백여명이 모여 興京縣 平頂山 暖泉山中에 安坐하였다가 21년후인 1935년 己亥 3月 10日 春川 柯亭의 藥岩에 移葬 奉安되었다.⁶⁸

III. 毅菴의 思想

1. 思想的 背景

(1) 衛正斥邪論

衛正斥邪란 邪學을 물리치고 正學을 지킨다는 뜻이다. 이는 한 民族의 傳統文化에 대한 새로운 文化의 挑戰(Challenge)이라던가 傳統社會에 대한 異質의 要素의 侵透에 의해 傳統文化와 傳統社會가 衝激을 받았을 때 이에 對應(Response)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意識形態의 하나이다. 衛正斥邪란 그 시초의 형태에 있어서 文化的인 自己秩序를 지키기 위한 民族의 自存意識은 衛正이란 형식으로 表現되었고 挑戰的인 異賢信仰을 물리치기 위한 排斥意識은 斥邪란 形式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自存意識에서 形成된 衛正斥邪論이었기에 그 思想體系속에 있는 民族思想과 愛國思想이 民族國家的 이데올로기로 成長할 수 있었던 것이다.¹

韓末의 衛正斥邪論은 中國의 公羊學的 尊王攘夷의 春秋大義와 朱子學의 大義名分の 關衛論, 즉 化家爲國의 忠義思想을 兩大支柱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中華思想에서 導出된 華夷意識을 基礎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思想에는 保守的이고 排他的인 性格이 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中華의인 華夷意識에서 導出된 衛正斥邪論은 慕華의인 事大思想과 아울러 自己를 小華의 存在로 自負하는 自存意識이 강하것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 意味에서 韓末 衛正斥邪論속에 排他性과 保守性이 溫存되어 있음은 思想的 歸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 實例로서 尊明排淸思想을 들수 있고 異質의인 文化의 價値를 評價하기 앞서 그것을 非文化로 否定 抹殺해 버리는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衛正斥邪論은 一般的으로 그 民族의 社會的, 政治的, 文化的, 危機意識속에서 形成된 歷史的 產物

⁶⁷ 毅菴集 卷37 「病狀記語 및 寒燈蔓草」

⁶⁸ 毅菴集 卷56 行狀

¹ 洪淳熙「韓末 民族意識(衛正斥邪)의 成長過程」省谷論叢 第二輯 1971, pp.152~162.

² 洪淳熙「韓末 民族意識(衛正斥邪)의 成長過程」省谷論叢 第二輯 1971, pp.152~162.

인 것이다.³

朝鮮王朝은 建國以來 朱子學을 새로운 指導理念으로 받아들이고 朱子學 이외의 諸思想을 異端視하고 이를 信奉하는 자는 斯文亂賊으로 몰아 處斷하는 強硬策을 썼다. 그리고 成宗 朝에 이르러 王朝의 指導理念으로 定立되고 王朝의 成長에 따라서 점차 正統思想으로 固定化 되었다. 이와 같이 朱子學의 儒教思想 즉 儒教의 名分論은 朝鮮王朝 成立을 理論적으로 合理化하고 王朝의 政治權力的 正當性을 賦與하기 위한 이데오로기로 定立되었다. 다시 말하면 儒教的 價值體系는 朝鮮王朝의 政治權力的 正當性을 說明하는 權威的 教條로 등장하였고 權威的 政治理論은 朝鮮王朝의 國是로서 確立되었다. 이와 결부하여 새로운 지도적 支配階層이 形成되었으니 이것이 儒林集團으로 儒林이라는 새로운 社會階層으로 하여금 政治的, 社會的, 技能을 담당케한 歷史的 契機를 찾아볼 수 있다.⁴

指導集團으로서의 儒林은 現實적으로 統治過程을 담당하고 있는 官人과, 官人豫備軍으로서의 儒林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儒林의 新舊對立을 契機로 官人對 儒林이라는 對立된 두 개의 政治團位로 分離되었다. 이리하여 權力이라는 社會價値를 내세우는 官人集團과 規範이라는 倫理的 價値에 執着하는 在野 儒林集團 사이에는 役活의 分化現象이 일어나 朝鮮王朝 政治의 名分과 現實間의 二重構造가 具體化함에 이르렀다. 그래서 儒林은 言論과 輿論을 中心으로 爲民政治 倫理에 의하여 民衆을 代辨하고 나아가 官人을 批判, 牽制하는 投入 技能을 담당함으로서 民族의 側面으로 그 機能을 志向케 하는 근본적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⁵

國家的 側面에서 自主權을 喪失한 乙巳條約 이후 統治機能의 담당자인 官人그룹에 대신하여 儒林이 民衆과 合勢하여 自主權 恢復을 위한 民衆運動을 展開한 것은 儒林의 民族의 側面을 나타낸 것이다.⁶

朝鮮王朝의 政治權力的 正當性을 說明하는 權威的 教條로서 定立된 儒教的 價值體系(朱子學의 名分論)는 그 自體內에 教條主義的인 排他性이 도사리고 있었고 權力爭取를 위한 儒林간의 대립 등 國內의 政治狀況에 의하여 黨論과 禮論의 道具가 되어 종래의 權威를 喪失했을뿐 아니라 空理空談의인 名分論에 사로잡혀 治世濟民이라는 본래의 精神에서 離脫해 갔다. 그리고 黨爭의 持續은 國權의 衰微, 綱紀의 紊亂은 招來했고, 官人의 行悖와 苛斂 誅求는 國民의 생활을 위협하여 社會不安을 가져오게 되니 人心은 점차 王朝로 부터 離反되어 갔다. 이와 같은 王朝의 末期의 現象을 막기 위해서 蕩平策이 提示되었고 實事求是를 위한 實學의 新學風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전통적인 禮教秩序를 蘇生시키지 못한채 새로운 歷史的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17세기 중엽의 西勢東漸이 그것이다.⁷

西歐勢力의 流入에서 形成된 衛正斥邪論은 西歐列強의 頻繁한 來侵과 天主教 勢力의 增

³ 洪淳利「韓末 民族意識(衛正斥邪)의 成長過程」省谷論叢 第二輯 1971, pp.152~162.

⁴ 洪淳利「韓末 民族意識(衛正斥邪)의 成長過程」省谷論叢 第二輯 1971, pp.152~162.

⁵ 崔昌圭「義兵抗爭을 通해본 民族意識의 成長過程」韓國政治學會報 第3輯 1969, pp.31~34.

⁶ 崔昌圭「義兵抗爭을 通해본 民族意識의 成長過程」韓國政治學會報 第3輯 1969, pp.31~34.

⁷ 洪淳利 前揭書 p.161.

大, 民擾의 頻發, 綱紀의 紊亂 民心의 動搖, 社會不安의 造成 등 國內外的 危機가 깊어져 감에 따라 高唱되었을뿐 아니라, 衛正斥邪論 그 自體도 思想的으로 深化 發展해 갔고 그 運動型態도 多樣性을 띄게 되었다. 즉 天主教를 排斥하는 과정에서 民族自主意識이 成長되고 覺醒된 民族意識은 民族主義思想으로 昇華 發展하였다. 또 邪學을 배척하는 思想運動의 형태는 外勢의 直接的인 侵透에 의하여 斥洋斥倭라는 排外運動으로 方向을 轉換했고 日本의 侵略에 대하여 斥倭를 중심으로 하는 民族主義 運動으로 발전해 갔다.⁸

天主教는 傳統的인 禮教秩序를 破壞하는 教理와 行動을 지니고 있었으니 天主教에서는 父母와 先祖의 祭祀를 否認하였다. 이는 孝를 最高의 善으로 評價하고 三綱五倫을 道德의 根本으로 삼고있는 儒者들에겐 人間의 本性인 人倫을 否定하는 非人間 즉 禽獸의 가르침으로서만 認識되어 天主教를 새로운 宗教로 評價하기 以前에 그것을 非文化的인 것으로 規定하고 排擊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排他的 이데오로기는 吾黨이라는 偏狹한 集團과 宗社라는 王朝의 支配秩序를 중심으로 形成되었기에 民族 그 자체와 直結되는 排他意識은 아니고 19세기 中엽 西歐勢力이 文化的인 側面에서 經濟的 樣相으로 具體化되어 갔을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排他意識으로 強化되었다.⁹ 즉 西歐의 物質的 勢力이 강하게 밀려오자 申觀浩가

“潛行邪教 顯求通貨”¹⁰

의 사실을 憂慮하고 金炳學이 洋貨의 遍滿을 念慮하여 內修外攘의 方法으로 保國安民을 主張하였으니¹¹ 이는 당시 識者層의 일반적인 輿論이었다.

高宗 3年 奇正鎮은 洋物의 流入을 西勢의 來侵과 同一視하고 그러한 狀況에서 西洋과 通交한다는 것은 그들의 勢力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 排擊해야 한다는 內修外攘的 洋物禁斷論을 폈으며¹² 이를 理論的으로 深化시켜 自意識의 理論體系를 定立하고 實踐의 方向으로 이끌어 나간것이 李恒老의 洋貨排斥論이다. 그리고 이를 보다 적극적인 思想體系로 이끌어 가서 具體化 시킨것이 金平默의 禦洋論이다.¹³ 이같이 經濟的 危機에서 形成된 民族主義 이데오로기의 思想的 主流은 西歐의 侵略이란 歷史變數가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을 통하여 修好條約을 強要하여 왔을때 그것을 反對하는데서 發顯되어 1881年 辛巳 衛正斥邪運動에서 더욱 高潮되고 1895年의 乙未 義兵運動에서 具體化하였다가 1905年 이후에는 自主權 恢復을 위한 近代의 民族運動으로 發展하였다.¹⁴

⁸ 洪淳和 前揭書 p.161.

⁹ 洪淳和 前揭書 p.161.

¹⁰ 高宗實錄 卷4 元年 正月 15日條 右參贊 申觀浩 上疏

¹¹ 日省錄 高宗 3年 5月 30日條

¹² 日省錄 高宗 3年 8月 16日條 副護軍 奇正鎮斥和疏(賜批)條

¹³ 日省錄 高宗 3年 10月 3日條 護軍 李恒老疏 陳時務仍乞遞全吾之任(賜批)條, 重菴集 卷38 雜著 禦洋論.

¹⁴ 崔昌圭 前揭書 p.29.

그러나 衛正斥邪 思想은 한결같이 過去의 歷史속에서만 行爲의 規範을 발견하고 傳統的인 思想속에만 眞理가 있다는 頑命과 保守의 行爲가 아니었으니 여러사람의 斥邪論 中에는 開化를 전제로 하되 다만 안으로 國力을 充實히 한뒤에 나라의 門을 열어야 한다는 進一步의인 사상을 갖었었다.¹⁵ 아롱튼 1890年代는 自主獨立이라는 歷史의 狀況속에서 開化意識과 自主獨立 思想이 結合된 時期이고 開港體裁아래 開化推進勢力(主로 官人)과 이에 대항하는 斥邪排他勢力(主로 儒林)사이에서 意識下의 갈등이 自主라는 새로운 역사적 實踐任務를 通하여 融合하려는 歷史段階였다. 이와 같이 外勢에 대한 危機意識은 儒林들의 衛正斥邪, 倭洋一體論으로 表現되었고 邪學, 洋貨, 洋術의 排斥으로 나타났으며 日式強兵策의 強行은 舊式軍人들의 抗爭(任午軍亂)과 日本人 排斥으로 나타났으며 甲申政變을 契機로 反日感情으로 발전하여 東學革命과 乙未 義兵運動을 통해 大衆化 했다.¹⁶

(2) 李恒老의 斥和論

玄相允氏は「朝鮮儒學史」에서

“近世儒學의 중심이요 참으로 代表할만한 學者는 3인이 있으니 奇正鎭, 李恒老, 李震相이다 그중에서도 奇正鎭과 李恒老는 別로 傳受한 淵源도 없이 각기 獨力으로 平地에서 掘起한 篤學者이다.”¹⁷

라고 하고 田愚까지 포함시켜 4인으로 代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儒學者들의 共通되는 思想은 堯舜三代의 舊制度와 舊文化를 金科玉條로 알고 三綱五倫을 道德의 根本으로 하여 忠孝를 最高의 善으로 評價하는 復舊의이요 封建의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開港이래 西歐 列強의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侵透앞에 취한 태도는 強硬한 衛正斥邪였다. 이것은 對內的으로 허물어져 가는 封建制度와 倫理를 再整備 強化하는 守舊의인 운동이었고 對外的으로는 斥洋斥倭였다.¹⁸ 그런데 이 衛正斥邪 運動은 主로 李恒老의 淵源을 받은자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니 이들은 性理學의 本質인 義理學을 바탕으로 春秋大義와 愛君憂國을 重視하는 強력한 衛正斥邪運動 이었다.

華西 李恒老에 대해서 「朝鮮儒學史」에서

“獨學으로 道를 求하여 일일이 朱子를 본받았는데 30대에 벌써 名聲이 높아져 사방에서 從遊하는자 심히 많았다. 平日에 「愛國如父 憂國如家」의 8字를 士子의 힘쓸바 標의이라 하여 이것을 門徒에게 力說하며 또 尊王攘夷의 春秋大義를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後日 斥邪衛正을 부르짖으며 倡義護國의 운동을 提唱한 이들은 거의 華西淵源을 받은 儒者로 獨占의 憾이 없지 않다.”¹⁹

¹⁵ 前掲 義兵抗爭史 p.95.

¹⁶ 洪淳稜 前掲書 pp.188~190.

¹⁷ 玄相允 「朝鮮儒學史」 p.385.

¹⁸ 金義煥 「日帝의 朝鮮侵略과 初期義兵 鬪爭巧」 東國史學 9,10合輯, 1969, p.107.

¹⁹ 玄相允 前掲書 p.394.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華西는 韓末 衛正斥邪運動의 대표자로 衛正斥邪論은 中國의 公羊學의 尊王攘夷의 春秋大義와 朱子學의 大義名分の 關衛論을 思想의 兩大支柱로 삼고 있었으니 이는 中華思想에서 導出된 華夷意識을 基礎로 하고 있었기에 그 思想에는 保守的이고 排他的인 性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慕華의인 事大思想과 아울러 自己를 小華의 存在로 自負하는 自存意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²⁰

이같은 斥邪意識은 丙寅洋擾를 前後하여 連이은 來侵을 契機로 한층 더 危機意識이 增大하여 華西는

“洋夷之禍 至於今日 人獸之間 存亡之機”²¹

“況今洋賊倡颯 當危急存亡之秋”²²

라는 表現을 통하여 當面한 國家적 危機로 인식하고 西洋人의 侵略性을 看破하여

“西洋人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邪學을 傳播하는 이유는 다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同調者들을 구하고 그들과 表裏相應하여 우리나라의 虛實을 偵探하여 후에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아름다운 우리의 風俗을 進창속에 쓸어넣고 우리의 財物을 掠奪해서 자기들의 限量 없는 貪慾을 채우려는데 있다.”²³

고 하여 洋賊에 대한 警覺心을 높이고 斥洋斥和의 理由를 儒教的 倫理觀에서

“國論의 兩論이 交와 戰이라 洋賊을 공격하자는 것은 우리쪽이요 和平하자는 것은 洋賊쪽이니 우리편에서면 國家와 風俗을 保全할 것이요 저쪽에서면 人類를 禽獸의 땅에 빠트릴 것이다.”²⁴

라 하고 主戰論을 주장하였으며 斥和의 根本對策에 대해서는 그의 爲民政治觀에 立脚해서 人心의 歸向을 重視하고 民事에 重點을 둘것을 강조하면서

1) 土木의 役을 中止하고

2) 歛民의 政을 禁하고

3) 奢侈의 習俗을 버리고

4) 宮室을 낮추고 租衣租食하며 民事에 힘쓴 然後에 洋賊을 물리치고 國家를 保全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經濟的 側面에서는 奇正鎭의 洋物禁斷論을 理論的으로 深化시켜 自意識의 理論體系로 整

²⁰ 洪淳和 前揭書 p.192.

²¹ 日省錄 高宗 3年 9月 19日 工曹參判 李恒老疏 陳病狀乞遞仍陳時務賜批條

²² 日省錄 高宗 3年 9月 12日 承旨 李恒老疏 斥和仍陳時務(賜批)條

²³ 註 12와 同

²⁴ 註 22와 同

²⁵ 洪淳和 前揭書 p.168.

理하고 그것을 實踐的 方向으로 이끌어 나간것이 洋貨排斥論이다.

高宗 3年 10月 2日의 陳時事疏에서 西洋製品은 奢侈品이어서 日用に 쓸모가 없고 다만 禍根임을 지적하는 한편 工業生産과 農業生産의 差異를 看破하여 歲計에도 不足한 農產物과 西歐의 工業生産品을 交易한다는 것이 經濟的 破綻을 招來하는 危險性이 있으므로 西歐 物質文明과의 交易의 不當性을 理論的으로 說明하는²⁶ 한편 經濟的 自存이라는 民族意識으로 발전시켜

첫째, 中原文化를 중심으로한 華夷論的 尊王攘夷 思想과 連結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여기에 이르러서는 韓民族 自體의 生存權의 自存을 中心으로 하는 民族意識으로 발전시켰고

둘째, 그 理論은 文化的 擾越이나 맹목적인 排他性에서가 아니라 物質文明의 侵略段階에 따르는 民族主義的 經濟論理를 微弱하나마 併行시키고 있었으며

셋째, 經濟的 自存이라는 排他意識은 洋物禁斷이라는 消極的 政策으로 부터 洋貨排斥이라는 積極的인 不買 不用의 生活運動으로 發展시켜 帝國主義 侵略에 따라 成長하여 왔던 韓民族 自主意識에 커다란 主流를 이루었다.²⁷

以上 간략하게 살펴온 바와 같이 그는 春秋大義와 朱子學的 關衛論에 立脚하여 傳統의 文化와 風俗을 지키기 위해 外來文化의 受用을 拒否하는 衛正斥邪의 觀念論이 그의 思想의 主流였다.

2. 毅菴의 反開論

毅菴의 思想은 宇宙問答에서 說明한 대로 反開論에 集約된다.

그는 일찌기 華西 李恒老에게 師事하여 그 學統을 充實히 이어받았을뿐 아니라 몸소 實踐하였으니 李恒老의 斥和論이 開國以前의 아직도 外勢의 壓迫이 微微할 때의 觀念論이라면 毅菴의 反開論은 開國에서 亡國에 이르는 가장 現實的인 破局에 處한 때의 實踐論이었다. 그러므로 毅菴에게는 開化亡國이라는 너무나도 不當한 現實에 直面하여 어떻게 하면 義를 지키느냐 하는 지극히 現實的이고 行動的인 問題가 本質論에 앞섰던 것이다. 그래서 開化에서 亡國에로의 한 段階 한 道程이 벌어질 때마다 自身과 門人들에게 이른바 處變三事, 處義有三을 提示하여 舉義와 去守, 自靖 또는 致明이라는 行動原理를 강조하고 늘 積極, 消極을 莫論한 組織的인 抵抗戰略과 萬全之策을 주장하였다.²⁸ 그리하여 직접 門人들을 激勵하며 義兵의 先頭에 나서서 不當한 外勢를 물리치기 위해 鬪爭하기도 하고, 內修外攘의 思想에 立脚하여 開化輩 및 官吏들의 警覺心을 促求하여 一心으로 團結하여 外勢를 물리치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실현되지 못했을때 우리의 力量이 不足함을 알고 外國의 援助와 內的인 實力을 向上시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몇차례의 去國 및 鄉約, 義諦 貫一

²⁶ 洪淳稔 前揭書 p.161.

²⁷ 金榮國, 「韓末 民族運動의 米譜的 研究」 韓國政治學會報 第3輯 1969, pp.97~8.

²⁸ 朴性壽 毅菴集 解題 p.10.

約等 組織的인 實踐方案을 提示하였다.

毅菴은 華西와는 달리 開化와 西法의 正體를 직접보고 그것을 批判해야 할 時期에 살았던 것이다. 祖國과 舊學(儒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 異域에서 世界大勢를 論駁하고 守舊精神을 誇示한 宇宙問答에서 自己를 喪失하고 저들로 化해 버리는 失我化彼의 開化의 悲劇을 暴露하고 中國(東洋文化)과 外國(西洋文化)의 本質的 差異를 看破하여 中國은 中國다 위야하고 外國은 外國다 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즉 東洋諸國은 傳統的인 東洋의 法制와 文化를 지켜야 하는데 전혀 異質的인 西洋의 習俗과 機械文明을 덮어놓고 좋아하고 模倣하는 일은 自我喪失의 悲劇을 招來할 뿐이라는 것이다.²⁹ 이리하여 그는 東洋이 固有의 文化를 固守함으로서 致強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西洋技術은 그 중 쓸만한것을 골라써야 한다는 東道西器論을 폈다. 그리고 西技를 배우기 위한 留學生은 반드시 愛國心이 있는 자를 보내야 하는데 가끔 故國을 背信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忠信才智를 兼한 사람을 擇해 배우게 해야 할 것이며 才智는 있어도 忠信이 없으면 반드시 害를 입게 될 것이며³⁰ 또 제멋대로 가서 헛되이 留學하는 자를 禁하고 西學 留學者는

“主本於正學 固定心志也”³¹

라고 한것처럼 儒學을 基本으로 하여 뜻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君主制에 대해서는 君主制가 많은 弊端이 있으나 外來의 干涉을 招來하여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選舉制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였다. 그래서 中國은 人口가 4萬萬(4億)인데 君主가 하나인데 4億 모두가 君主가 되는것은 옳지 않고 한사람으로 足하다 하고, 西洋에는 大統領이 있으나 아래사람의 말을 듣고 政治하는 점에서 東洋의 君主나 西洋의 大統領은 마찬가지로 하였다.³²

美國에 대해서도

“美國爲富 非其爲爲民主也 土地產出極厚也”³³

라고 하고 美國은 自力으로 英國의 勢力을 물리치고 建國한 나라요 처음부터 君主가 없었으니 民主主義가 가능하나 우리는 君主가 처음부터 있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反問한다. 그리고 貴族制度에 대해서도 開化論者들은 打破貴族하여 貴賤을 莫論하고 사람을 賢, 不賢에 따라 가려준다고 하나 孟子의 말처럼 貴族打破는 나라를 망치게 하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며 제대로 均衡잡힌 人物을 얻을려면 貴族的 霧圍氣가 必要하다고 하였다.³⁴

²⁹ 毅菴集 卷50 宇宙問答

³⁰ 上同 “今取彼所長當途徒學 彼必擇兼 忠信才智人學之 雖有才智 不忠信則 必終生害”

³¹ 上同

³² 上同

³³ 上同

³⁴ 上同

自由 平等論에 대해서도

“天地도 有高下하고 萬物도 有大小하며 山도 有巖陵하며 물도 有渠海한데 어찌하여 平等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는 君臣, 父子, 夫婦, 長幼, 上下, 尊卑, 聖愚, 智愚의 區別이 있는데 어찌하여 平等할 수 있으며 西洋法에 立憲한다지만 거기도 역시 君主 臣民이 있고 共和한다지만 大·副統領이 있으며 上下議員이 있으니 必境은 平等할 수 없는 것이다”³⁵

라고 주장하고

“平等則無序 無序則亂 自由則不讓 不讓則爭 今世界亂爭之爲 起無他平等自由也”³⁶

라고 前提한뒤 만일 이대로 두었다간 人類는 滅亡하고 세계는 무너질 것이니 平等自由論은 世界의 最惡說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亡國의 根源은 마음을 빼앗기는데 있다고 한다.

“지금 外國이 中國의 土地를 빼앗으려하고 있는데 무릇 남의 나라를 빼앗는데 마음만 빼앗으면 土地를 빼앗기란 쉽다.”³⁷

고 하고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게 된 始初는 開化를 주장한 자들이 西法의 두려움을 알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덜어놓고 慕悅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이 우리나라를 빼앗기를 西法으로 하였는데 먼저 西洋法을 慕悅하는 者의 마음을 얻고 私로서 誘引하더니 日本은 開化시켜 준다. 獨立시켜 준다 하더니 결국 保護한다 하고 合併해 버렸으니 우리나라는 西法의 禍를 가장 甚하게 입은 나라이라고 하였다.³⁸ 그리고 그가 가장 重視한 것은 開化로 因한 道德的 타락이었다. 그에 의하면 社會倫理의 紊亂은 바로 舊法을 버리고 分別없이 開化를 좇기 때문이며 이러한 開化가 아니라 바로 倭化요 洋化인 것이다. 흔히 秦學을 배우면 化秦하고 楚學을 배우면 化楚한다는 말대로 倭學을 배우면 化倭하는 法인데 요즘의 開化는 自我를 喪失한 失我化이다. 그런 뜻에서 開化論者들은 西法에 病든 者들이다 라고 하였다.³⁹

道德에 대해서는 당시 固陋한 儒學者들과는 달랐으니 만일 道德만 爲主하다 外國의 大砲의 위협을 받게되면 무엇으로 당해 내겠느냐의 質問에 대해

³⁵ 上同 “天地有高下 萬物有大小 山有巖陵 水有渠海 如之何其平等之也 人有君臣父子 夫婦長幼上下尊卑之分 有聖凡智愚之異如之向 其平等之也 西法有立憲 有君主臣民共和有大副統領 又皆有議院上下 畢境爲平等不得也”

³⁶ 宇宙問答

³⁷ 上同 “外國欲奪中國土地也 夫奪人之國 先奪人心 奪人心 土地不難奪也”

³⁸ 上同 “日本之爲奪國也 以西法始終之 先得慕悅者之心 而有爲開化 爲開化而爲曰爲使獨立 獨立曰爲 保護保護而爲曰合併 蓋其始也 誘之以利其終也”

³⁹ 上同

“이 質問은 도대체 道德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에서 나온 것이다. 道는 玄妙하고 空虛하며 微茫한 것이 아니라 內容이 있고 現實的인 것이며…道는 알 수 없고 莫然한 것이 아니라 公明正大하고 智仁勇을 兼備하고 文으로도 武로도 發揮되어야 할 萬人이 다 依據해야 할 實力이다.”⁴⁰

라고 한 바와 같이 道德을 積極的 進就的으로 해석하고 진정한 道德은 實質的인 力量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西洋 사람들은 技術을 爲主로 하는데 東洋사람들 특히 朝鮮사람들은 道德을 爲主로 하는데 지난 時期 西洋 사람들에게 印度나 中國이 敗하고 侵略당한 것은 西洋의 技術이 東洋의 道德보다 더 優越한 것이 아니라 侵略을 당한 나라에서 道德을 抽象的인것 또는 無爲 無能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¹

그가 開化가 받드시 道德的 타락을 갖어오는 이유는 西法 그 자체에 있으니

“西洋에서는 父子가 不同居하며, 貧富貴賤이 不相及할 뿐 아니라 男女관계에 있어서 우리 社會에는 男便이 죽어도 改嫁치 않고 따라 죽는일까지 없지 않는데 西洋에서는 남녀가 전혀 分別이 없으며 서로 손을 잡고 입까지 맞춘다.”⁴²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西洋 여자들은 남편을 虐待하고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니 아내는 하늘같이 높아지고 남편이란 땅과 같이 엷드리는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하고⁴³ 여자의 窺태가 이같이 높아진것은 女學校가 있어 여자가 배우기 때문이라 하며 여자가 공부하게 되면

“蕩純全之姿 而悅奇塗之習 壞內貞之志”⁴⁴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자의 志操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女學校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新學校며 新教育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舊學이 新學과 다른 점은 舊學이 道理를 배우는데 反해 新學은 形氣를 배우기 때문이라 하고⁴⁵ 교육의 목적은

“孟子曰 學校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 上小民親於 下明人倫可曰 學校明人倫 天下無一人不親也”⁴⁶

라고 한것처럼 人倫을 밝히는 것이 孟子이래의 교육의 목적이라 하고 있다.

⁴⁰ 上同 “是不知道德爲何如物也 …道非玄虛 微茫之物 內充實著顯立之 …大德非迷昧 孤淡之物 乃光明健剛 兼之知仁勇 發之以爲文 揮之以爲武 而爲使人共據之實…”

⁴¹ 金泉陽「愛國思想家 柳麟錫」漢陽 12號 1962, p.82.

⁴² 宇宙問答 “西洋不如是 父子不同居 貧富貴賤不相及 夫死不嫁 夫死死得 男女無制 至於執手比”

⁴³ 上同 “女虐其夫 夫畏其婦 婦高如天 夫屈如地”

⁴⁴ 宇宙問答

⁴⁵ 上同 “中國朝鮮學校 所學道理上事而 新學校所學形氣上事也”

⁴⁶ 上同

그런데 西洋의 學校에서는

“背倫理之常 窮形氣之欲 以是而爲治 爲強其治也”⁴⁷

할 뿐이다. 즉 道德은 가르치지 않고 이에 違背되는 形氣만을 窮其所欲할 뿐 이라고 하며 또 新學校는 愛國者라고 自處하는 賣國 親日輩들이 設立 經營하는 것이니 이런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모두 禽獸雜物로 만들고 만다고 하고 西歐列強의 침략에서 主權喪失의 悲運을 冒免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적 安定과 軍事的 自立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一舉殺 百人千人之 西洋兵器를 導入하는 한편 國民皆兵制를 實施하기를 주장하였다.⁴⁸ 그리고 富國強兵의 對策으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土農工商의 固着된 身分制度에 대해 反省을 促求하면서 여기에 兵을 添加할 것을 提起하였다.⁴⁹ 그러면서 그는 兵을 特殊한 別個의 身分이나 직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土農工商이 모두 자기의 事業을 하면서 兵에 服務할 것과 또 土農工商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부분과 일정한 聯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士於藝 士於工 士於商 士於兵 兵於商 兵於工 兵於農 兵於士”⁵⁰

특히 士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니 이것은 學問하는 사람들이 現實生活로 부터 遊離되고 政治에 대해서는 無關心을 나타내는 것이 不當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想이 당시에 있어서 進步的인 役割을 했음은 明白한 것이니 混亂되고 어려운 時局일수록 인테리들에게 現實逃避의 傾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면에 이런 現實逃避가 그만큼 害毒을 준다는 思想이 毅菴에게 一貫되어 있었던 것이다.⁵¹ 그리고 西洋의 비스마르크나 나폴레옹같은 人物들은 사람을 感服, 心服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狡猾性과 殘虐性으로 사람들을 欺慢, 壓迫하였음으로 진정한 英雄일 수 없고 이들과 對比하여 外來侵略者와 싸워 國權을 지키고 그의 德行으로 國民을 歎服시킨 李舜臣 將軍이야말로 진정한 英雄이라 평가하고 있다.⁵²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政治理念에서 儒教的 觀念을 脫殼하지 못한것은 아직도 당시 사회와 歷史的 條件이 成熟되지 못하였다는 制約性이 있으며 또 그의 全生涯를 통한 實踐的 活動에 있어서도 이러한 見解가 積極的인 役割을 遂行하였다는 것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⁵³ 그리고 韓日合併의 悲報를 듣고 滿州에서 著述된 冊이란 점을 參酌한다면 그의 反開化論은 充分히 理解되고 共感이 가는 것이다.

⁴⁷ 上同.

⁴⁸ 上同 “西強之於 兵器既極其利 利無有加而 惟恨其不利 一舉殺百人千人 而惟恨不善殺人 其得兵器”

⁴⁹ 上同 “若夫兵亦有國之 不可無者無兵則 不守國也 故古帝王 皆有兵備然 兵不得已而用之 用之亦不常也”

⁵⁰ 上同

⁵¹ 金泉陽 前揭書 p.83.

⁵² 宇宙問答

⁵³ 金泉陽 前揭書 p.83.

여기서 그가 開化를 全的으로 否定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開化의 方法이 拙速하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舊學이 나쁘고 新學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제까지 舊學의 나라에서 그렇게 일시에 舊學 禁止令을 내린다는 것은 不當하다. 서서히 漸進的으로 改革해 나가도 늦지 않다.”⁵⁴

고 말한데 있다. 아무튼 毅菴의 實質的 德治思想은 民族自主精神, 愛國思想과 結合되고 道德을 現實改造의 方途로 삼으려는 見解등과도 結合되었던 것이다.

IV. 結 言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毅菴 柳麟錫은 韓末의 激動期에 태어나서 나라가 日本에 併合된지 6년만인 1915년 亡國의 슬픔을 가슴에 안은채 遼東에서 돌아가시기 까지 全生涯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살아오셨다.

일찌기 李恒老 先生의 門下에 들어가 斥洋斥和를 주장하고 丙子條約을 반대하여 洪在龜와 斥和疏를 올렸으며 乙未事變이후 斷髮令 頒布를 契機로 여러 門人들의 推戴를 받아 義兵大將에 나서 많은 戰果도 올렸으나 官軍인 張基濂에게 敗하여 西北으로 基地를 옮겼으나 끝내 遼東으로 들어가 舊制를 지키며 國權恢復을 위해 힘썼다. 때로는 國王의 召命으로, 때로는 士友들을 激勵하며 몇차례의 去國과 歸國을 하며 義諦를 맺어 傳統的인 國制와 禮義를 지켰으며 鄉約組織으로 一進會에 대항코자 했으며 遼東에서 貫一約을 만들고 13道義軍都總裁에 推戴되었으나 韓日合併의 悲報에 접하고 끝내는 1915년 74세로 遼東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의 思想은 이미 밝힌대로 李恒老의 衛正斥邪論을 이어받아 自身과 祖國 및 儒學을 지킨다는 實踐的인 理論이었다.

華西의 그것이 開國以前의 觀念論인데 반해 毅菴의 그것은 開國에서 亡國에 이르는 現實에 처했을때 어떻게 하면 義를 지키고 外勢를 몰아내느냐 하는 行動主義的인 實踐論이었다 그러나 그가 儒教的 觀念에서 脫殼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당시 社會와 歷史의 條件이 이를 벗어나게 하리만큼 成熟되지 못했다는 制約이 있으나 그가 全的으로 開化를 拒否한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改革해 나가야 한다고 한데서 보다 일보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參 考 文 獻

- 洪淳和「韓末 民族意識(衛正斥邪)의 成長過程」省谷論叢 第2輯, 省谷學術財團刊行 1971.
 崔昌圭「義兵抗爭을 通해서 본 民族意識의 成長過程」韓國政治學會報 第3輯 1969.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獄立運動史編纂委員會刊 1970.

⁵⁴ 宇宙問答

金義煥「日帝의 朝鮮侵略과 初期義兵 鬪爭攷」東國史學 9,10輯 1966.

獨立運動史資料集 卷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刊, 1970.

毅菴集, 景印文化史刊, 1970.

日省錄

承政院日記

趙東杰「安重根義士 裁判記錄과 人物 金斗星考」春川教育大論文集 第7輯, 1969.

玄相允「朝鮮儒學史」

金泉陽「愛國思想家 柳麟錫」漢陽 第12號, 1962.

A Study on Yu In-sok

Se-kyu Kim

Gwang-Ju Health Junior Colleg

>Abstract<

Yu In-sok's life was filled with a patriotic spirit throughout 74 years of his life. He was born in when the Yi dynasty was in the whirlpool of accommodating Christianity and opening her doors to the outside world.

Earlier in his life, deeply influenced by Lee Hang-no, a famous Confucian scholar, Yu insisted on the idea of "Rejecting the Occident and Refusing Peace with It."

Against the Bilateral Treaty of 1876 between the Yi dynasty and Japan, Yu, together with his henchmen, appealed to King Gojong not to validate the treaty.

When the self-imposed group of people rose up immediately after the tragic incident in which Queen Min was assassinated by a group of Japanese hoodlums and the decree requiring the people to cut their traditional long hair, Yu sought to attack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their jackals who appeared to be national traitors and egotistic open-door policy supporters.

His idea at the time was to restore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o protect the traditional civilization when the dynasty was on its way to downfall.

He was defeated by Gen. Chang kee-yom of the royal army, and had to withdraw to the north-western regions of the country until he finally took refuge in Liaotung in China where he led a tradition-oriented life while trying to redeem the national sovereignty.

After years in Liaotung, he could return home at the behest of King Gojong and formed a militia to inspire the people with enthusiasm and to protest against the Ilchin-hoe, a pro-Japanese group, shuttling back and forth across the Yalu River.

As the Treaty of 1896 was signed between the Yi dynasty and Japan, Yu decided to stage a long drawn-out struggle against Japan because the resistant spirit might be broken by a possible lack of assistance from outside of the country.

He pledged with his compatriots in Vladivostok to make efforts to do the best of his ability toward enthusiasm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headed the people's

army which was gathered from 13 regions of the country.

Yu's positive anti-Japan warfare, however, suffered a fatal blow at the time of the tragic annexation of the dynasty by Japan. without being frustrated, he appealed in his letter to King Kojong to take refuge in vladivostok of Russian territory.

Since he noticed that all of his desires had never been fulfilled, he went to Liaotung again and inspired youngsters with his patriotic spirit until he died there in 1915.

His army at one time reached about 3,000 people, who could control the Chechon, Wonju and Chungju areas at the pinnacle of its strenght. But due to the rainy session in the following year, lack of arms, discord between Confucian scholars and farmer-soldiers, deficiency in their organizing ability and so on, he was defeated by the royal army.

Despite his failure to repel the Japanese invasion, noteworthy is the fact that his resistant spirit inspired the people with national identity, and further strengthened their sense of national pride with a positive attitude. He also demonstrated the need to solidify Korean compatriots in times of national hardships.

Yu taught the people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steer cause toward cultivating national identity, transcending emotio al and negative attitudes. This enabled them to enhance their organizing ability and to stage an effective movement toward their independence.